

“무모한 불나방 될지라도 새로운 도전하겠다”



스타 예능 PD로 불리는 김태호 PD.

김태호PD 20년 만에 MBC 퇴사
연말까지 ‘놀면 뭐하니?’ 연출
‘무한도전’ 히트 스타 PD 등극

나영석 CJ ENM PD와 더불어 양대 스타 예능 PD로 불리는 김태호 PD(46)가 20년 만에 MBC를 떠난다.

MBC는 7일 “김 PD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MBC는 이어 “김 PD는 2001년 1월 MBC에 입사해 ‘무한도전’, ‘놀면 뭐하니?’ 등을 연출하며 MBC 예능 프로그램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김 PD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는 김 PD의 앞날을 응원한다”고 했다.

김 PD는 MBC를 통해 “MBC를 퇴사하지만, 앞으로 또 다른 협력 관계로 MBC 예능과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도 “만 20년을 MBC 예능본부 PD로 살아오면서 자랑스럽고 행복했던 날이 많았다”면서도 “매주 ‘무한·도전!’, ‘놀면 뭐하니? 뭐라도 짝자!’ 하며 늘 새로운 강조해왔지만 ‘나는 정작 무슨 변화를 꾀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점점 머릿속을 채워갔다”고 퇴사 배경을 밝혔다.

이어 “비록 무모한 불나방으로 끝날지언정, 다양해지는 플랫폼과 급변하는 콘텐츠 시장을 보면서 이 흐름에 몸을 던져보기로 마음먹었다”며 “미래에 대해 확실히 정한 건 없다. 다만 오래

몸담은 회사에 미리 얘기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아 지난 8월 초, MBC를 떠나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오랜 시간 고민해서 어렵게 내린 결정이란 걸 알기에 MBC도 저의 뜻을 존중하며 미래를 응원해주기로 했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2021년 12월까지의 MBC 예능본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사원증을 반납한 이후에도 좋은 콘텐츠를 위해서 MBC와 협업하는 방법도 논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장 내년부터 어떤 길을 걷게 될지는 아직도 고민 중”이라며 “‘세상이니 콘텐츠야 이디어는 없다. 단지 콘텐츠와 플랫폼의 조합이 안 맞았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후배들과 해왔던 터라, 여러 플랫폼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그걸 증명하고 싶다는 마음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PD는 오는 12월까지 MBC에서 프로그램 제작을 맡을 예정이며, 김 PD가 연출하는 ‘놀면 뭐하니?’는 함께 일했던 후배 PD들이 끌어나갈 계획이다.

김 PD는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1월 MBC에 예능 PD로 입사해 유재석 등을 내세운 ‘무한도전’을 히트시키며 스타 PD가 됐다.

13년간 ‘무한도전’을 이끌었던 그는 2018년 3월 프로그램이 종영한 후 해외 연수를 다녀와 다시 유재석과 손잡고 2019년 ‘놀면 뭐하니?’를 시작, 다양한 프로젝트를 히트시키며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프리 선언 배성재 음악 예능 MC 도전



SBS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배성재가 음악 예능 MC에 처음 도전한다.

MBN은 을하 반기 선보일 종합편성채널10주년 특별기획 ‘헬로트로트’의 진행자로배성재를 낙점했다고밝혔다.

배성재는깔끔한 전달력과 노련한 진행 실력

을 바탕으로 센스 좋은 입담을 뽐낼 예정이다. 또 ‘중계의 고수’답게 탄탄한 중계 실력으로 ‘트로트 국가대표 선발전’을 끌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헬로트로트’는 트로트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기획돼 전 세계 음악 전문 프로듀서들이 참여하고 트로트 크로스오버 무대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한민국 대표 트로트 가수들과 뮤지션이 각 팀을 대표하는 감독이 돼 코치진과 함께 선수들을 캐스팅하고 훈련을 한다. 선발된 선수들은 팀을 이뤄, 트로트 번안곡 부르기과 해외 장르 콜라보레이션·편곡 미션 등 각 라운드에서 다양한 미션과 경연을 수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머느라기’·‘체인지 데이스’ 시즌2로 돌아온다

최근 출범 1주년을 맞이한 카카오투V가 올 하반기 선보일 드라마와 예능 등 오리지널 콘텐츠 라인업을 발표했다.

공개 예정인 콘텐츠 목록에는 평범한 여성의 결혼생활을 그려낸 ‘머느라기’의 두 번째 시즌과 유희열, 유재석, 정재형 등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안테나의 아티스트들이 출연하는 ‘데일이TV: 우당탕탕 안테나’ 등이 이름을 올렸다.

드라마에서는 ‘머느라기2’ 외에 영화 ‘기담’과 ‘군지암’ 등을 연출한 정범식 감독의 서스펜스극 ‘소름’, 허영만 화백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박호산·옹성우의 휴먼 드라마 ‘커피 한잔 할까요?’가 공개된다.

또 소셜미디어(SNS) 속에서는 유명인이지만 현실에서는 존재감 없는 학생인 구애진의 이중생활을 그린 ‘그림자 미녀’, 판타지 로맨스 스릴러 ‘남자전구를 조심해’, 캠퍼스 코믹 로맨스 ‘바니와 오빠들’, 모태솔로 탈출기 ‘아쿠아맨’ 등 카카오투V 속 인기 작품들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도 예고됐다.

예능에서는 ‘데일이TV: 우당탕탕 안테나’ 외에도 ‘진짜 사나이’의 김민중 CP와 ‘와썹맨’의 이견영 PD, 웹 예능 ‘머니게임’·‘가짜사나이’ 제작진들이 함께하는 격투 서바이벌 ‘파이트 클럽’, 러시아 특수부대 출신 교관의 지도 아래 작전을 수행하는 ‘슬기로운 용병생활’이 공개될 예정이다.

또 인기 아티스트들과 춤, 노래 악기 등 다양한 장르에 특화된 실연자들의 만남을 그린 ‘히든: 더 퍼포먼스’, 가수 소유, 배우 박진주 등 스타들의 일상을 만나보는 ‘CMM’ (Celeb-owned Media Management)도 라인업에 포함됐다. 연에 리얼리티 ‘체인지 데이즈’도 시즌 2로 돌아온다.

/연합뉴스



‘버터’ 피쳐링 참여한 미국 래퍼 메건 더 스텔리언.
/Marcello Cantu 제공

BTS ‘버터’ 출시 한 달만에 빌보드 1위 재탈환

통산 10주간 1위 ‘올 최장기록’ 연장
메건 더 스텔리언 피쳐링 버전 출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히트곡 ‘버터’가 미국 래퍼 메건 더 스텔리언이 피쳐링한 리믹스 버전 출시에 힘입어 한 달 만에 빌보드 정상에 복귀했다.

빌보드는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지난주 7위를 차지했던 ‘버터’가 이번 주 1위로 뛰어올랐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버터’가 핫 100 1위를 기록한 것은 통산 10주째다.

지난 5월 21일 발매된 ‘버터’는 6월 초부터 8월 초까지 통산 9주간 핫 100을 장기 지배했다. BTS의 또 다른 곡 ‘퍼미션 투 댄스’에 1주간 1위를 넘겨준 것을 제외하고 내내 정상을 지켰다.

‘버터’는 올해 들어 가장 오래 핫 100 1위에 머무른 곡 타이틀도 갖고 있다. 이번 1위 복귀로 해당 기록을 한 주 연장하게 됐다.

1위에서 내려온 최근 4주 동안에도 4위→7위→8위→7위를 기록하며 10위권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인기를 유지했다.

빌보드에 따르면 핫 100 차트의 63년 역사에서 10주 이상 1위를 차지한 곡은 ‘버터’를 비롯해 역대 40곡뿐이다.

‘버터’의 1위 반등은 지난달 27일 스텔리언이 피쳐링한 리믹스 버전이 출시되며 새롭게 추진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버터’ 원곡이 청량한 사운드에 BTS 멤버들의 매력이 담긴 보컬, 랩을 다채롭게 접할 수 있다면, 리믹스 버전은 스텔리언이 가세해 힘있는 랩과 애드립을 펼치면서 색깔이 더 풍부해졌다.

스텔리언은 올해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3관왕을 차지한 차세대 여성 래퍼다.

세계 최정상 보이밴드로 자리매김한 BTS와 현재 팝 시장에서 가장 떠오르는 래퍼로 꼽히는 스텔리언의 만남이어서 리믹스도 관심을 모았다.

/연합뉴스

음콘협 “대중예술인 대체복무 허용 병역법 통과돼야”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국의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의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주요 음반기획사 및 유통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음콘협은 지난 7일 유튜브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K팝 산업 진흥을 위해 지혜로운 결정이 내려지길 소망한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음콘협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다.

현재 국내의 순수예술 분야 경연대회와 올림픽·아시안게임 상위 입상자 등으로 규정된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대중예술인도 포함하는 것이 법안 골자다.

지난달 공개된 국방위 검토보고서는 이 법안에 대해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올림픽, 콩쿠르 등과 같이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지표가 없음에 따라 객관적 편입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음콘협은 “순수 예술의 경우 국내 신문사가 개최한 콩쿠르에 입상해도 병역 혜택이 되

는 것이 과연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국위선양 기여도가 이제까지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1,804명에 이르지 못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BTS가 전 세계적 K팝 열풍을 이끄는 등 활약하면서 대중문화계에선 순수예술 종사자만 예술·체육요원에 편입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9월 9일 (음력 8월 3일)

 子	48년생 귀인을 만나다. 60년생 명성을 천하에 떨친다. 72년생 너무 자신을 자학하지 말고 냉정해져야 한다. 84년생 성급하게 결정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丑	49년생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61년생 너무 잘난 척하면 미움을 받는다. 73년생 불정객이 찾아오니 소란스럽다. 85년생 불길하니 자중하라.	 寅	50년생 신용이 회복되지 살맛난다. 62년생 아무리 찾아봐도 해결책이 없다. 74년생 이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86년생 융통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卯	51년생 마음을 급게 쓰면 복을 받는다. 63년생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다. 75년생 매도 먼저 맞는 편이 낫다. 87년생 떠난 사람은 빨리 잊는 것이 이롭다.
 辰	52년생 성급한 선택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64년생 주변 사람을 서운하게 하지 말라. 76년생 지나친 욕심은 재난을 부른다. 88년생 물고기가 물을 만났다.	 巳	41년생 나이를 탓하지 말라. 53년생 오늘은 정말 운수 좋은 날이다. 65년생 모든 일에는 순서와 원칙이 있다. 77년생 미인은 얼굴값을 하기 마련이다.	 午	42년생 가장의 권위가 흔들린다. 54년생 곳간에서 인심난다. 66년생 유언비어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78년생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뜻을 이룬다.	 未	43년생 집안에 경사가 있겠다. 55년생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다. 67년생 융통성이 없으면 심신이 괴롭다. 79년생 근심이 해결되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申	44년생 자나 깨나 자식 걱정뿐이다. 56년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68년생 우연한 만남으로 좋은 인연을 맺는다. 80년생 속상해도 밖으로 표현하지 말라.	 酉	45년생 피곤하고 힘든 날이다. 57년생 신변에 원치 않는 변화가 있겠다. 69년생 맑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한다. 81년생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기만 하다.	 戌	46년생 구리가 황금으로 변하는 시기이다. 58년생 행운이 따른다. 70년생 하늘이 도우니 실패란 있을 수 없다. 82년생 망설일 것 없이 과감하게 추진하라.	 亥	47년생 서운한 일이 있겠다. 59년생 문서 운이 약하니 중요한 계약 체결은 미뤄라. 71년생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이다. 83년생 최고의 덕목은 역시 사랑이다.